

2015년 8월 16일 주일설교  
와싱턴 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정치를 합시다” (Let's Engage in Politics)

열왕기상 3:4-9

올 해는 해방 70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8월 14일에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5일에 일본 황제 쇼와가 방송을 통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8년에 이르는 전쟁이 끝났고,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우리 나라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 70년과 종전 70년을 돌아보며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무수히 많은 목숨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쟁들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국가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들이었고, 무의미한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국가를 지킨 결과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지킨 경우가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그럴 경우에는 의미있는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렉서너리를 따라 열왕기상 3장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혜'를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국가가 왜 존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 보면 솔로몬은 성군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조상의 은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v.6). 둘째,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능력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v.7). 셋째, 솔로몬은 백성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v. 8,9)? 이런 지도자 어디 없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이라고 느끼고, 자신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자신이 섬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이상적인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 장은 ‘예루살렘 잔혹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죽음을 앞 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살해하라고 지시합니다. 솔로몬은 지시대로 그들을 처형하고, 왕자들을 비롯해 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후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또 20 년이 넘도록 성전과 왕궁, 별장을 짓기 위해 백성과 노예를 동원하여 혹사시킵니다. 삶의 호화스러움의 극치에 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맞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칠백 명의 후궁과 삼백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여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국가입니다. 마땅히 권력은 그것을 주신 분(하나님)과 그것을 맡겨 준 사람들(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쉽게 권력 잡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권력이 오용됩니다.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요더는 “믿는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가 의미한 ‘정치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은 현실의 삶으로부터 도피하여 천국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한 정치입니다.

조국 해방 70 년, 세계 2 차대전 종전 70 년, 일본의 패전 70 년을 기억하는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또한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국가와 이 땅의 권력을 대해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해서 이 땅의 권력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이 땅의 국가를 혹은 이 땅의 권력을 전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국가와 권력에 대해 한 편으로는 협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 보아야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며, 맡겨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힘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 정치를 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또한 경험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참여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가 권력자들의 욕망을 채우고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수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정치를 하십시오.

<속회자료>

“정치를 합시다” (Let’s Engage in Politics )

열왕기상 3:4-9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82 장(통 261 장)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열왕기상 2 장과 3 장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해방 70 년을 맞아 당신에게 든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패전 70 주년을 맞은 아베 담화에 대해 당신은 어떤 느낌입니까?
  - 3) 솔로몬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권력의 속성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 4) 설교의 결론에 제시된 세 가지 다짐을 당신의 말로 다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6. 기도
  - 1)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솔로몬의 고백을 품고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애국가.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